



##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기원\*\* · 성한기\*\*\*

이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특히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이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 단계 군집표집에 의해 선정된 370명의 기혼 여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다 단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부간의 상호소통, 친밀성, 성적 만족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결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경제활동 여부, 가구 소득 수준, 결혼 만족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를 성에 대한 단일 기준 집단과 이중 기준 집단으로 나누었다. 분석의 결과는 부부간의 상호 소통과 친밀성은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나, 성적 만족은 결혼 만족과 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은 매우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이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 수준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단어:** 성에 대한 이중기준, 결혼만족, 결혼안정, 기혼여성, 회귀분석

###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결혼제도가 지니는 그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사회 현상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Smock, 2004). 결혼제도의 퇴조는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동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혼외 출산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혼율은 점

\* 이 연구는 2005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차 감소하고 있는 현상 등이 포함된다(Amato, Johnson, Booth, and Rogers, 2003; Smock, 2004). 결혼제도의 퇴조를 불러오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어렵지만(Smock, 2004),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변화의 역동에서(Cherlin, 2004; Oropesa and Landale, 2004), 또는 사회 및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의 변화에서(Le Bourdais and Lapierre-Adamcyk, 2004) 그 원인들을 찾고 있다. 특히 Seltzer(2004)는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개인주의의 팽배가 결혼제도의 퇴조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결혼제도의 퇴조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과 함께 결혼생활의 질도 가족 및 인구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제기된다.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결혼관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혼생활의 불안정은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Glenn, 1990). 결혼생활에서의 만족은 결혼을 안정되게 하며, 결혼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안녕을 돌보는 보호요인이 된다(현경자, 2004; 현경자·김연수, 2002).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자신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우애와 정서발달에도 도움을 준다(Korn and Cohen, 1984). 그러나 불안정한 결혼생활이 지속되면 부인들은 심한 우울증이나 정서적 문제에 시달리며(최규련, 1993), 남편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거나 수명이 단축되기도 한다(Wickrama, Lorenz, and Conger, 1997). 특히 부모의 불안정한 결혼생활은 자녀의 우울 증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Wang and Crane, 2001),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자녀의 우울 증세에 이혼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Korn and Cohen, 1984).

우리나라 가족 연구에 있어서는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윤경자, 1997; 이미숙, 1997; 이영미·김정희, 1997; 조성욱·신효식, 1987; 조은경·정혜정, 2002; 최규련, 1984), 결혼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관련 변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김미숙·김명자, 1990; 김태현·이성희, 1988; 김태현·전길양, 2002; 임선영·김태현, 2002)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결혼생활의 안정성과 관련된 통합적 이론 모형의 설정과 이에 대한 실증 분석(김영희, 1996, 1999; 전춘애·박성연, 1993, 1994)과 결혼 만족과 관련된 통합적 이론 모형의 설정과 이에 대한 실증분석(현경자, 2004; 현경자·김연수, 2002)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들이 지니는 한계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특히 결혼 안정성과 관련된 통합적 이론 모형은 부분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다(김영희, 1996, 1999; 현경자, 2004).

이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과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특히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도 분석에 포함된다.

## II.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가설

### 1. 결혼 만족

결혼 만족은 기혼 남녀의 주관적 안녕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되며, 그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는 보호요인이 된다. 그리고 결혼의 안정 및 해체 방지에 기여한다(현경자, 2004; 현경자·김연수, 2002). 따라서 결혼 관련 연구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와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문제로 다루어졌으며(Gottman and Notarius, 2002), 많은 연구들이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Glenn, 1990; Lauer, Lauer, and Kerr, 1990; Robinson and Blanton, 1993).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혼 만족의 결정요인으로는 출생 순서(Gold and Dobson, 1988), 성역할에 대한 태도(Stevens, Kiger, and Riley, 2001), 자아 정체성 또는 자기관(Schafer, Wickrama, and Keith, 1996), 자기존중감(Sacco and Phares, 2001) 등이다. 그리고 여성의 소득이 결혼의 질과 안정성의 여러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많았는데(Booth, Johnson, White, and Edwards, 1984), Rogers and DeBoer(2001)은 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해 여성의 절대적 및 상대적 소득의 증가가 결혼 생활의 행복감과 안녕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이혼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낮추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인 소득의 증가가 결혼생활의 불화를 야기하고 이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으며(Hiedemann, Suhomlinova, and O'Rand, 1998), 오랫동안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 유지될 때 부인들은 소득을 올린다는 반론이 제시되기도 한다(Rogers, 1999).

결혼 자체를 보는 시각이 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혼 만족의 결정 요인은 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Kurdek, 2005).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

성이 상호관계에서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생물학적 접근(Simpson and Gangstad, 2001)과 자기개념이나 사회 역할을 다르게 구성한다는 사회심리학적 접근(Costa, Terraccian, and McCrae, 2001; Eagly and Wood, 1999)으로 설명된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의 결정요인으로 부부간의 상호소통, 친밀성, 그리고 성 만족을 포함시켰다.

Larson and Holman(1994)은 생태론적 접근에 바탕을 둔 결혼 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하여 세 영역의 요인-배경 요인(출신가족 변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개인 특성 및 행동, 그리고 부부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부부간의 상호작용 과정은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구분되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더 낮은 결혼 만족과 높은 이혼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Rosen-Grandon, Myers, and Hattie, 2004; Stanley, Markman, and Whitton, 2002), 부부간의 상호작용 과정은 주로 의사소통 방식과 갈등해결 방식을 다루고 있다(김선영·김영희, 2005).

친밀성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매우 역동적인 요소가 된다. Harper, Schaalje, and Sandberg(2000)은 결혼생활의 여러 영역-정서적, 사회적, 성적, 지적 및 여가적 영역-에서 함께 경험하는 과정을 친밀성으로 정의하면서,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결혼의 질을 높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부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주로 여러 사건들이 쌓여지면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일상생활의 사소한 갈등에 대한 반응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Holmes and Rahe, 1967; Harper, Schaalje, and Sandberg, 2000에서 재인용), 이러한 스트레스가 결혼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은 실증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Morokoff and Gilliland, 1993). 개인간의 친밀성은 사람관계에서 표출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게 되는데,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 친밀성은 결혼 생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줌으로써 결혼 생활의 질을 높이게 된다(Harper, Schaalje, and Sandberg, 2000).

성 관계는 감정 및 신체적 건강의 중요한 양상으로, 성 관계에 있어서의 만족은 결혼 만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Young, Denny, Luquis, and Young, 1998; Young, Denny, Young, and Luquis, 2000). 성적 만족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 남성은 성 관계의 빈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여성은 성 관계의 정서적인 면에 중요성을 둔다(Bridges, Lease, and Ellison, 2004). 따라서 여성의 성적 만족도는 성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갖는지, 얼마나 자주 성 관계를 갖는지, 성 관계 중에 오르가즘을 느끼는지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Gossmann, Julien, Mathieu, and Chartrand, 2003; Young, Denny, Luquis, and Young, 1998; Young, Denny, Young, and Luquis, 2000).

## 2. 결혼 안정

결혼 안정은 결혼 불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Booth, Johnson, and Edwards, 1983), 결혼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로부터 결혼 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결혼 생활은 당사자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Wickrama, Lorenz, and Conger, 1997), 가족구성원에게도 우울증이나 행동장애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Korn and Cohen, 1984; Wang and Crane, 2001).

결혼 안정의 결정요인으로는 주로 결혼의 질 또는 결혼 만족<sup>1)</sup>과 여성의 경제적 활동 및 가구 소득이 분석되고 있다. 부인의 취업 또는 경제적 독립과 결혼 안정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가족 관련 연구에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Cherlin, 2004; Oppenheimer, 1997; Ruggles, 1997). 여성 취업과 결혼 안정의 관계는 주로 역할 분화 가설과 경제 기회 가설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다(Schoen, Astone, Rothert, Standish, and Kim, 2002). 가족에 대한 구조 기능주의적 접근에서는 성 역할의 분화는 결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부인의 취업은 결혼생활의 안정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환이론적 접근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결혼생활 중의 한 배우자가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술과 경험으로 역할이 분화되고, 다른 배우자는 집안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기술과 경험으로 역할이 분화될 때 결혼생활은 남편이나 부인 모두에게 효용이 높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 모두 취업을 함으로써 역할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혼생활에서 얻어지는 이득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낮아지게 된다. 경제 기회 가설에서는 결혼 불안정을 불만족스러운 결혼관계의 결과로 본다. 그리고 부인의 취업이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결혼 해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Oppenheimer, 1997; Ruggles, 1997).

1)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의 절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결혼 안정의 관계는 실증분석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South(2001)는 1969년부터 1993년까지의 패널자료의 분석에서 초기에는 부인의 취업이 결혼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만족스러운 결혼 상태의 여성들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Schoen, Astone, Rothert, Standish, and Kim(2002)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행복한 결혼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의 해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구 소득과 결혼 안정의 관계는 주로 효용극대화의 원리에 바탕을 두는 교환이론에서 접근된다(Nathanson and Schoen, 1993).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종류의 잠재적 자원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통하여 얻어지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은 결혼을 안정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높은 소득, 좋은 직장, 그리고 보다 나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White and Rogers, 2000: 1040)에 바탕을 두는 이러한 가설은 경제력을 지닌 남성이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진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남성의 경제적 상황과 이혼 가능성은 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 3.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 그리고 성에 대한 이중 기준

서구 국가들에 있어서의 가족 연구에서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에 대한 접근도 주로 효용극대의 원칙과 사회적 교환에 둔 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두 이론 모형-Lewis and Spanier(1979)의 이론과 Thomas and Kleber(1981)의 이론-도 모두 교환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에머슨(Emerson, 1981)은 교환이론의 주요 가정을: 첫째,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를 합리적 행위라 일컫는다; 둘째, 모든 가치있는 사상은 포만, 가치 적응, 또는 한계효용 체감의 원칙을 따른다; 그리고 셋째, 사회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대가로 제공된 이익을 조건으로 한다면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호교환의 과정에 있어서 교환관계는 한계

효용 체감의 원칙에 따라 보상의 가치가 점차 적어지면서 형평의 상태로 접어들며, 부부간의 관계도 교환이론의 원칙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부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도움에 대한 보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 그리고 미래의 지원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교환관계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호혜성의 규범이 깨지더라도 상호지원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커진다(Call, Finch, Huck, and Kane, 1999).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Lewis and Spanier(1979)는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워야 안정된 결혼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를 매개하는 상황변인으로 결혼 이외의 대안적 매력과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 압력을 제시하고 있다.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 사이의 관계가 대안적 매력에 의하여 약화되어질 수 있으나, 결혼 생활의 유지를 강조하는 사회 규범이나 제도 등과 같은 외부 압력은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 사이의 관계 정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Lewis and Spanier, 1979: 290).

Thomas and Kleber(1981)는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매력과 외부 압력의 영향에 대하여 Lewis and Spanier(1979)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결혼의 유지에 대한 외부 압력이 결혼의 안정을 강화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Thomas and Kleber(1981)는 결혼 생활의 유지를 강조하는 사회 규범 등과 같은 외부 압력이 크면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는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결혼 생활의 유지에 대한 외부 압력이 강할 경우 결혼 해체와 관련된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간에 결혼 생활 자체는 유지된다. 따라서 결혼 만족은 결혼 안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결혼 이외의 대안적 매력이 증가하면 결혼 불만족과 결혼 불안정성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불만스러운 결혼 생활의 과정에서 대안적 매력이 나타나게 되면 결혼을 끝내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대안적 매력이 없는 부부의 경우 결혼 관계 이외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결혼 생활의 유지를 강조하는 외부 압력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계된다. 성 역할이 보완적이 되기보다는 서로 비슷해 질 경우에 결혼에서의 응집력은 약화되는데(Becker, 1981; White, 1990: 905에서 재인용),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은 보완적 성 역할의 한 형태가 된다. 전통적으로 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

해 여성과 남성은 다르게 취급되어 왔으며(Tannahill, 1981; Haavio-Mannila and Kontula, 2003에서 재인용), 성에 대한 이중 기준(sexual double standard)은 성적 기준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말한다.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은 주로 여성에게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혼전 순결과 특정한 성 행태의 수용과 관련되어 진다(Francoeur, Perper, Scherzer, Sellmer, and Cornog, 1991). 이러한 이중 기준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거나 교환의 대상으로 삼는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여성이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을 보일 경우 현재의 결혼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 4. 연구 가설

이 연구는 기혼 여성들의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이 결혼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부부간의 상호소통과 친밀성 수준은 결혼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1-1. 부부간의 연령차가 클수록 부부간의 상호소통 및 친밀성 수준은 낮을 것이다.

가설 1-2. 결혼기간이 길수록 부부간의 상호소통 및 친밀성 수준은 낮을 것이다.

가설 1-3. 연애결혼의 경우에 부부간의 상호소통 및 친밀성 수준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높을 것이다.

가설 1-4.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부간의 상호소통 및 친밀성 수준은 높을 것이다.

가설 2. 부부간의 친밀성과 성적 만족 수준은 부인의 성생활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2-1. 부인이 성생활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일 때 부부간의 친밀성 수준은 높을 것이다.

가설 2-2. 부인이 성생활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일 때 부인의 성적 만족 수준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부부간의 상호소통, 친밀성 및 성적 만족 수준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부부간의 상호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가설 3-2. 부부간의 친밀성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가설 3-3. 부부간의 성적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가설 4.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안정성도 높을 것이다.

가설 5. 부인이 성에 대해 이중 기준을 보일 때의 결혼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 간의 관계 정도는 단일 기준을 보일 때의 경우보다 낮아질 것이다.

### Ⅲ. 자료 수집 및 변인의 측정

#### 1. 조사 대상 및 자료의 수집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의 수강생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행정구역인 구를 표집단위로 하는 일단계 군집표집에서는 2개 행정구역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해당 구의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를 표집단위로 한 이단계 군집표집(two-stage cluster sampling)에서는 각 1개씩의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를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에 선정된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기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2004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에 이루어 졌는데,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의 수강생들에게 교육시간을 이용해 연구자가 조사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으며, 수강자가 약 15분간에 걸쳐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였다. 기입된 설문지는 집단으로 수거되었는데, 452명의 수강자로부터 452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수거된 설문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항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82부의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대상자가 되는 452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중에서 370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자료의 활용률은 81.6퍼센트가 된다.

#### 2. 변인의 측정

##### 1) 결혼 안정성

Lewis and Spanier(1979)는 결혼 안정성을 결혼의 결과로 정의하고 있다. 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만 결혼관계가 종료될 때를 안정된 결혼으로 정의하며, 한 배우자 또는 양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결혼상태를 종결시키는 것을 불안정한 결혼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결혼불안정성의 지표로 이혼과 별거를 사용하고 있다(Lewis and Spanier, 1979). 그러나 Booth, Johnson, and Edwards(1983)는 결혼 불안정성을 결혼 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결혼불안정성은 결혼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으며, 부부가 현존하는 결혼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김미숙·김명자(1990: 173)도 결혼 불안정성을 ‘결혼 해체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공식적인 이혼으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부부 상호간의 심리상태가 결혼을 와해시키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 지표로 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 불안정성을 ‘현재의 혼인관계를 파기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정의하였으며, Booth, Johnson, and Edwards(1983)가 개발한 결혼 불안정성 지표(Marital Instability Index)의 단축형 5문항을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5문항은 모두 결혼 불안정성을 나타내며<sup>2)</sup>, 각 문항에 대해 ‘아니다’와 ‘그렇다’의 2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결혼불안정성은 결혼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결혼 불안정성의 문항에 대해 역점수 처리하여 결혼 안정성의 지표로 전환하였다. 결혼 불안정성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로 대답한 경우에는 1점을, 그리고 ‘아니다’의 경우에는 2점을 주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안정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측정된 문항의 신뢰도는 수용할 정도의 수준이다 (Cronbach's  $\alpha=0.66$ ).

## 2) 결혼 만족도

결혼생활의 질에 관한 측정에는 Glenn(1990)이 개발한 도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척도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결혼생활의 질이 측정되고 있다. Johnson, White, Edwards, and Booth(1986)은 결혼에 대하여 느끼는 개인적 만족의 정도가 결혼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 중

2) 결혼 불안정성을 묻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이혼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본 적이 있다.
2. 최근 3년 이내에 남편이나 내가 심각하게 이혼을 제의한 적이 있다.
3. 나는 친한 친구와 이혼이나 별거에 관해 의논한 적이 있다.
4. 우리 부부의 결혼생활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 이혼이나 별거에 관한 생각이 최근 3년 동안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다.

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데, 결혼생활의 만족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은 많다<sup>3)</sup>. 이러한 측정도구들은 모두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기입식 측정도구인데, 측정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점수화하기에 편리한 이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생활과 남편에 대해서 지니는 태도를 중심으로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이경성·한덕웅(2003)이 개발한 결혼적응검사의 하위검사들 중에서 7문항으로 된 결혼만족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에 관한 전반적 만족을 측정하는 세 문항(예를 들어, ‘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등)과 남편에 대한 만족을 묻는 네 문항(예를 들어, ‘나는 마지못해 남편과 함께 산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확실히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결혼 생활의 만족에 대한 긍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확실히 그렇다(5점)’까지로, 그리고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점)’까지의 값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결혼의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의 신뢰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Cronbach's  $\alpha=0.94$ ).

### 3) 성에 대한 이중기준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은 성적인 행동에 대한 기준을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은 주로 여성들에게 대하여 성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성은 결혼하기 전까지 처녀성을 지켜야 하나 남성은 동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후 여성은 성생활을 자제해야 하나 남성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등을 말한다.

Haavio-Mannila and Kontula(2003)는 성에 대한 태도와 성행위에 있어서의 성별간 차이를 세 차원-외도, 성행위에 있어서의 주도권, 성적 만족-으로 나누어서 측정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차원을 나타내는 3문항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남편의 외도보다 아내의 외도가 더 잘못된 일이

---

3)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혼 만족의 지표로는 Dyadic Adjustment Scale(DAS; Spanier,1976), the Marital Adjustment Test(MAT; Locke and Wallace, 1959), the Revised Marital Adjustment Test(RMAT; Kimmel and Van Der Veen, 1974),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 Schumm et al., 1983), the Revised Dyadic Adjustment Scale(RDAS; Busby et al., 1995) 등이 있다.

다, '성관계는 남편이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숙한 여자는 성욕의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한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확실히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세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Cronbach's  $\alpha=0.56$ ), 성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세 차원(Haavio-Mannila and Kontula, 2003)을 포함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세 문항에 대한 대답의 평균이 3.0 이상인 경우를 성에 대하여 이중 기준을 보인 집단으로, 그리고 3.0 미만인 경우를 성에 대한 단일 기준을 보인 집단으로 나누었다.

#### 4) 기타 변인

이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간의 상호소통, 부부 친밀성, 그리고 성적 만족을 포함시켰다. 부부간의 상호소통은 남편과 의사소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수준을 말하며, 이경성·한덕웅(2003)의 결혼적응검사 중 4문항으로 된 부부 상호소통 척도(예를 들어, '나는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등)를 사용하였다. 부부 친밀성은 남편에게 친밀함을 느끼고, 남편의 행복을 기원하며,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수준으로서 이경성·한덕웅(2003)이 개발한 결혼적응검사의 하위검사들 중 8문항으로 된 부부 친밀성 척도(예를 들어,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등)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적 만족은 부부간의 성행위를 통해 경험하는 주관적 만족감을 말하며, 김숙남·장순복·강희선(1997)이 제작한 여성의 성만족 척도 중 7문항으로 된 반응척도(예를 들어, '나는 성관계시 즐거움을 느낀다' 등)를 사용하였다. 부부간의 상호소통, 부부 친밀성, 그리고 성적 만족과 관련한 문항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확실히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에게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각각 Cronbach's  $\alpha=0.90, 0.91, 0.88$ ).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토대로 연구자가 7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sup>4)</sup>. 각 문항

4) 성생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성관계는 결혼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 성관계에 있어 오르가즘이 중요하다.
3. 성생활에 관해 부부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부부간에 성적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5.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성치료제(비아그라 등)를 복용할 수 있다.
6.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확실히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성생활에 대한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낸다.<sup>5)</sup>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측정된 신뢰도는 높지 않았다(Cronbach's  $\alpha = 0.63$ ).

부부간의 상호소통과 친밀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적 특성에는 부부간의 나이 차이, 결혼 기간, 결혼 형태, 자녀수를 포함시켰다. 결혼 형태는 연애결혼과 기타로 이분화 해서 측정하였으며, 나이 차이와 결혼 기간은 년으로, 그리고 자녀수는 생존자녀의 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상태는 전업주부 여부로 이분화해 측정하였으며,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소득을 200만원 단위로 범주화해서 측정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는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기혼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23세부터 6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나이는 38.0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나이는 27세부터 67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평균 41.0세), 남편이 부인에 비해 5세 연하부터 14세 연상까지 나타난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평균 3.0세였다. 결혼 기간을 5년 단위로 범주화했을 때, 조사대상자는 주로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까지와 10년 이상부터 15년 미만까지에 분포되어 있었다(각각 26.2 및 26.8퍼센트). 그리고 대상자의 65.7퍼센트는 연애결혼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명의 자녀가 있는 대상자가 60.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67.8퍼센트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업주부였다.

결혼 만족도의 수준은 1부터 5까지 가능한데, 조사대상자들은 결혼 생활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3.9, 표준편차 0.8), 결혼 안정성의 경우 1부터 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1.8(표준편차 0.2)를 보이고 있어 조사대상자들이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성적인 행동에 대해 단일 기준을 적용

5)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약물(홍분제 등)을 복용할 수 있다.

〈표-1〉 조사대상자의 특성

특 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계	370	100.0		
결혼기간				
5년 미만	59	15.9		
5년 이상 10년 미만	97	26.2		
10년 이상 15년 미만	99	26.8		
15년 이상 20년 미만	44	11.9		
20년 이상	71	19.2		
결혼 형태				
중매 결혼	127	34.3		
연애 결혼	243	65.7		
자녀수				
자녀 없음	24	6.5		
1명	80	21.6		
2명	222	60.0		
3명 이상	44	11.9		
가족 형태				
핵가족	329	88.9		
확대가족	41	11.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8	43.7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180	48.6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32	8.6		
취업 여부				
취업	119	32.2		
전업 주부	251	67.8		
가구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7.6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4	44.3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8	21.1		
600만원 이상	26	7.0		
성에 대한 기준				
단일 기준	311	84.1		
이중 기준	59	15.9		
본인의 나이(살)			37.98	7.52
남편의 나이(살)			41.00	7.71
남편과 본인의 나이 차이(살)			3.01	2.31
결혼 만족도			3.92	0.82
부부 친밀성			3.96	0.76
부부 상호소통			3.50	0.87
성적 만족도			3.45	0.73
성생활에 대한 태도			3.08	0.59
결혼 안정성			1.83	0.24

하고 있는데(84.1퍼센트), 외도, 성행위에 있어서의 주도권, 성적 만족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 부부간의 상호소통, 친밀성, 그리고 성적 만족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간의 상호소통, 부부 친밀성, 그리고 성적 만족이 개인의 특성과 성생활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했다. 부부간의 상호소통, 부부 친밀성, 그리고 성적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2>에 정리하였는데, 부부간의 상호소통의 전체 변량의 2.4퍼센트만이 개인 특성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부부 친밀성의 경우에도 전체 변량의 3.2퍼센트만이 개인 특성에 의해서 설명되어 지고 있는데, 개인 특성 중 결혼 기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록 부부의 친밀성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부간의 성행위를 통해 기혼 여성이 경험하는 주관적 만족감은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적 만족에 있어서의 전체 변량의 10.2퍼센트가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부부간 성생활에 대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여성일수록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상호소통, 부부 친밀성 및 성적 만족에 대한 회귀 계수(N = 370)

변 인	부부간 상호소통		부부 친밀성		성적 만족	
	β	t	β	t	β	t
남편과의 나이 차이	-0.065	-1.253	-0.079	-1.517		
결혼 기간	-0.108	-1.815	-0.123*	-2.064		
결혼형태(1 = 연애결혼)	0.081	1.513	0.028	0.522		
자녀 수	0.051	0.864	0.054	0.917		
성생활에 대한 태도			0.098	1.897	0.107*	2.069
R <sup>2</sup>	0.024		0.032		0.102	
F	2.265		2.422*		4.282*	

\* p<0.05    \*\* p<0.01    \*\*\* p<0.001

### 3. 결혼 만족도, 결혼 안정성, 그리고 성에 대한 이중 기준

결혼 만족도가 보이는 전체 변량의 71.3퍼센트를 부부간의 상호소통, 친밀성, 그리고 성적 만족이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부부간의 상호 소통과 친밀성은 결혼 만족도에 대하여 0.00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부간의 상호소통과 친밀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의 수준도 높음을 보여 준다. 성적 만족의 전체 변량의 26.3퍼센트를 전업주부 여부, 가구소득, 그리고 결혼 만족도가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와 가구 소득은 결혼 안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결혼 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은 유의수준 0.0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안정성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3〉 결혼 만족도 및 결혼 안정성에 대한 회귀 계수(N=370)

변인	결혼 만족도		결혼 안정성	
	$\beta$	t	$\beta$	t
부부간 상호소통	0.194***	4.168		
부부 친밀성	0.696***	14.150		
성적 만족	-0.024	-0.676		
전업주부 여부(1=전업주부)			0.017	0.362
가구 소득			0.032	0.669
결혼 만족도			0.506***	11.024
R <sup>2</sup>	0.713		0.263	
F	302.755***		43.441***	

\* p<0.05    \*\* p<0.01    \*\*\* p<0.001

〈표-4〉 결혼 만족도 및 결혼 안정성에 대한 회귀 계수:  
성에 대한 단일 기준 집단(N=311)

변인	결혼 만족도		결혼 안정성	
	$\beta$	t	$\beta$	t
부부간 상호소통	0.194***	3.761		
부부 친밀성	0.690***	12.514		
성적 만족	-0.016	-0.397		
전업주부 여부(1=전업주부)			0.026	0.519
가구 소득			0.020	0.392
결혼 만족도			0.527***	10.687
R <sup>2</sup>	0.711		0.281	
F	252.171***		39.929***	

\* p<0.05    \*\* p<0.01    \*\*\* p<0.001



<표-5> 결혼 만족도 및 결혼 안정성에 대한 회귀 계수:  
성에 대한 이중 기준 집단(N = 59)

변인	결혼 만족도		결혼 안정성	
	$\beta$	t	$\beta$	t
부부간 상호소통	0.206	1.834		
부부 친밀성	0.718***	6.501		
성적 만족	-0.067	-0.800		
전업주부 여부(1=전업주부)			-0.082	-0.652
가구 소득			0.040	0.303
결혼 만족도			0.422**	3.320
R <sup>2</sup>	0.725		0.206	
F	48.216***		4.768**	

\* p<0.05    \*\* p<0.01    \*\*\* p<0.001

성에 대한 이중 및 단일 기준이 결혼 만족도의 관계와 결혼 안정성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에 대한 단일 기준 집단과 이중 기준 집단을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4>와 <표-5>에 정리하였다. 성에 대한 단일 기준을 보이는 집단에서는 결혼 안정성이 보이는 전체 변량의 28.1퍼센트를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가구 소득, 그리고 결혼 만족도가 설명하는데 반해서 이중 기준의 집단에서는 그 설명력이 20.6퍼센트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결혼 안정성에 대한 결혼 만족도의 회귀 계수도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을 보이는 집단보다 단일 기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각각  $\beta=0.422$ 와 0.527), 이는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이 결혼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의 관계 수준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들의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이중 기준이 결혼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370명의 기혼 여성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이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성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혼 불안정성은 결혼 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정

의될 수 있으며(Booth, Johnson, and Edwards, 1983), 부부가 현존하는 결혼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따라서 결혼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의 관계는 결혼 불만족도와 결혼 불안정성의 관계로 대체될 수 있다.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Lewis and Spanier(1979)와 Thomas and Kleber(1981)는 결혼의 질이 높을 때 안정된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울 때 부부는 현존하는 결혼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혼의 질과 결혼 안정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인으로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의 압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의 유지를 강조하는 사회 규범이나 제도 등과 같은 외부 압력은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 정도를 더욱 강화시키거나(Lewis and Spanier, 1979), 오히려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 압력이 클 때 결혼의 질과 결혼 안정성간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Thomas and Kleber, 1981).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은 주로 여성들에게 대하여 성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규범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의 성향을 지닐 경우 결혼 해체와 관련된 심리적 비용이 높게 되고, 결혼 생활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거나 간에 결혼을 유지하게 되어 결혼 만족도는 결혼 안정성과 강하게 관계되지 않는다.

결혼 만족은 결혼의 안정 및 해체 방지에 기여하는 주요인으로 기혼남녀와 그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는 보호요인이 된다(현경자, 2004). 결혼만족을 결혼의 안정 및 해체 방지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나(현경자·김연수, 2002), 결혼만족의 근원과 특성을 밝히는 연구방법의 한계와 이론 개발의 미흡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정현숙, 1997). 이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상호소통, 친밀감, 그리고 성적 만족을 결혼 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는데, 부부간의 상호소통과 친밀감은 결혼 만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성관계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결혼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으나(Young, Denny, Luquis, and Young, 1998; Young, Denny, Young, and Luquis, 2000),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성생활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결혼 만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임기구의 발달로 임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성 관계의 빈도가 높아 졌으며, 이는 성적 행동의 빈도와 형태에 관한 연구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성 관계의 주관적 양상인 성적 만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Bridges, Lease, and Ellison, 2004). 그리고 성적 만족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점도 함께 강조되고 있으나(Bridges, Lease, and Ellison, 2004), 성적 만족과 결혼 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만족과 결혼 만족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이 연구에서도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들이 지니는 한계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안정성과 관련된 통합적 이론 모형을 부분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자료의 수집과 관련한 분석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설문지의 내용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민감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의 교육시간을 이용해 조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집단으로 이루어진 자료 수집의 방법에서는 개인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탓에 본인과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설문에서 빈칸으로 남겨둔 경우가 각각 76명 및 75명은 전체 응답자의 약 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특성에 관한 별도의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는 탓에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외적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선영·김영희 (2005),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 요인: 신혼 초와 현재 결혼생활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3(9): 41-57.
- 김숙남·장순복·강희선 (1997), “여성의 성만족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7(4): 753-764.
- 김미숙·김명자 (1990),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71-183.
- 김영희 (1996),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 《한국생활과학회지》 5(2): 53-72.
- \_\_\_\_\_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77-95.
- 김태현·전길양 (2002),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과 결혼안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97-206.

- 김태현·이성희 (1988), “도시 주부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일 연구”, 《성신여대 논문집》 pp. 211-228.
- 윤경자 (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이경성·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679-705.
- 이미숙 (1997),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153-173.
- 이영미·김정희 (1997), “성역할 정체감, 사회적지지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51-365.
- 임선영·김태현 (2002), “노년기 부부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 《한국노년학》 21(3): 111-128.
- 전춘애·박성연 (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81-96.
- \_\_\_\_\_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 정기원 (2004), “사회경제 상황이 이혼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계열 자료의 분석, 1970~2002”, 《한국인구학》 27(1): 57-80.
- 정현숙 (2001a),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9(11): 89-106.
- \_\_\_\_\_ (2001b),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 조성욱·신효식 (1987), “결혼만족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6): 177-200.
- 조은경·정혜정 (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5.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1.
- \_\_\_\_\_ (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61-84.
- 현경자 (2004),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4): 239-268.
- 현경자·김연수 (2002), “기혼남녀의 결혼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

사회복지학》 49: 225-263.

- Amato, P. R., D. R. Johnson, A. Booth, and S. Rogers (2003), "Continuity and Change in Marital Quality between 1980 and 200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1): 1-22.
- Booth, A., D. R. Johnson, L. K. White, and J. N. Edwards (1984), "Women, outside Employment and Marital In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567-583.
- Booth, A., D. Johnson, and J. N. Edwards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87-394.
- Bridges, S. K., S. H. Lease, and C. R. Ellison (2004), "Predicting Sexual Satisfaction in Women: Implic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2): 158-166.
- Call, K. T., M. A. Finch, S. M. Huck, and R. A. Kane (1999), "Caregiver Burden from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Caring for Older People After Hospital Dischar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688-699.
- Cherlin, A. J. (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4): 848-861.
- Costa, P. T., A. Terracciano, and R. R. McCrae (2001), "Gender Difference in Personality Traits across Cultures: Robust and Surprising Find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2): 322-331.
- Eagly, A. H., and W. Wood (1999), "The Origins of Sex Differences in Human Behavior: Evolved Dispositions versus Social Roles", *American Psychologist* 54(6): 408-423.
- Emerson, R. M. (1981), "Social Exchange Theory", Pp. 30-65 in Morris Rosenberg and Ralph H. Turner (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Basic Books.
- Francoeur, R. T., T. Perper, N. A. Scherzer, G. P. Sellmer, and M. Cornog (1991), *A Descriptive Dictionary and Atlas of Sexology*, Westport: Greenwood Press.
- Glenn, N. D. (1990), "Quantitative Research on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818-31.

- Gold, S. B., and J. E. Dobson (1988), "Birth Order,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Path Analysis of Toman's Theory", *Individual Psychology* 44(3): 355-364.
- Gossman, H., D. Julien, M. Mathieu, and E. Chartrand (2003), "Determinants of Sex Initiation Frequencies and Sexual Satisfaction in Long-term Couples' Relationship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12(3/4): 169-181.
- Gottman, J. M., and C. I. Notarius (2002), "Marital Research in the 20th Century and a Research Agenda for the 21st Century", *Family Process* 41(2): 159-197.
- Haavio-Mannila, E., and O. Kontula (2003), "Single and Double Sexual Standards in Finland, Estonia, and St. Petersburg",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1): 36-49.
- Harper, J. M., B. G. Schaalje, and Sandberg (2000), "Daily Hassles, Intimacy, and Marital Quality in Later Life Marriag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18.
- Hiedemann, B., O. Suhomlinova, and A. O'Rand (1998), "Economic Independence, Economic Status and Empty Nest in Middle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219-231.
- Johnson, D., L. White, J. Edwards, and A. Booth (1986),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7(1): 31-49.
- Korn, S., and J. Cohen (1984), "Early Parents Attitudes, Divorce and Separation, and Young Adult Outcome: Finding of a Longitudinal Study: Annual Progress in Child Psychiatry and Child Development",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15(2): 86-103.
- Kurdek, L. A. (2005),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in Early Marriage: a Growth Cur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7(1): 68-84.
- Larson, J. H., and T. B. Holman (1994),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2): 228-237.
- Lauer, R. H., J. C. Lauer, and S. T. Kerr (1990), "The Long Term Marriage: Perceptions of Stability and Satisfaction", *International*

-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1: 189-195.
- Le Bourdais, C., and E. Lapierre-Adamcyk (2004), "Changes in Conjugal Life in Canada: Is Cohabitation Progressively Replacing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4): 929-942.
- Lewis, R. A., and G. B. Spanier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pp. 268-294 in W. R. Burr, R. Hill, F. I. Nye, and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Research-Based Theory*, Volume 1. New York: The Free Press.
- Morokoff, P. J., and R. Gilliland (1993), "Stress, Sexual Functioning,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ual Research* 30(1): 43-53.
- Nathanson, C. A., and R. Schoen (1993), "A Bargaining Theory of Sexual Behavior in Women's Adolescence." pp. 285-97 in Proceedings of the IUSSP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vol. 1. Liege, Belgium: International Union for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 Oppenheimer, V. K. (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1): 431-453.
- Oropesa, R. S., and N. S. Landale (2004), "The Future of Marriage and Hispan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4): 901-920.
- Robinson, I. C., and P. W. Blanton (1993), "Marital Strengths in Enduring Marriages", *Family Relations* 42(1): 38-45.
- Rogers, S. J. (1999), "Wives' Income and Marital Quality: Are There Reciprocal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23-132.
- Rogers, S. J., and D. D. DeBoer (2001), "Changes in Wives' Income: Effects on Marital Happin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Risk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458-472.
- Rosen-Grandon, J. R., J. E. Myers, and J. A. Hattie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haracteristics, Marital Interaction Proces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1): 58-68.
- Ruggles, S. (1997), "The Rise of Divorce and Separation in the United States, 1880-1990", *Demography* 34(4): 455-466.

- Sacco, W., and V. Phares (2001), "Partner Appraisal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4): 504-513.
- Schafer, R., K. Wickrama, and P. Keith (1996), "Self-Concept Disconfirma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2): 167-177.
- Schoen, R., N. M. Astone, K. Rothert, N. J. Standish, and Y. J. Kim (2002), "Women's Employment, Marital Happiness, and Divorce", *Social Forces* 81(2): 643-662.
- Seltzer, J. A. (2004),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Demography, Kinship, and the Fu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4): 921-928.
- Simpson, J. A., and S. W. Gangestad (2001), "Evolution and Relationships: A Call for Integration", *Personal Relationships* 8: 341-355.
- Smock, P. J. (2004), "The Wax and Wane of Marriage: Prospects for Marriage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4): 966-973.
- South, S. J. (2001), "Time-Dependent Effects of Wives' Employment on Marital Diss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2): 226-45.
- Stanley, S. M., H. J. Markman, and S. W. Whitton (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4): 659-675.
- Stevens, D. G. Kiger, and P. Riley (2001), "Working Hard and Hardly Working: Domestic Labor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514-526.
- Thomas, D. L., and J. E. Kleber (1981), "Comment on Marital Quality: A Review o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780-782.
- Wang, L., and D. R. Crane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Stability, Nuclear Family Triangulation, and Childhood Depress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9(4): 337-347.



- White, L. K. (1990), "Determinants of Divorce: A Review of Research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04-912.
- White, L. K. and S. J. Rogers (2000), "Economic Circumstances and Family Outcomes: a Review of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1035-1051.
- Wickrama, K. S. A, F. O. Lorenz, and R. D. Conger (1997), "Marital Quality and Physical Illnes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1): 143-155.
- Young, M., G. Denny, R. Luquis, and T. Young (1998), "Correlates of Sexual Satisfaction in Marriage",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7(2): 115-127.
- Young, M., G. Denny, T. Young, and R. Luquis (2000).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16(2): 73-84.